

3호

한문연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차철욱

전 화 051-510-1882 팩 스 051-581-5655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051-510-1932

Contents 01 | 인문 02 | 사업 03 | 학술지 04 | 구성원 동정 05 | 신간 소개 06 | 알림

人紋

“ 중(中) 혹은 사이(間)의 창의성 ”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상호 작용에 기초한 관계 존재론’은 서구의 근대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이원론, 결정론 그리고 객관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자는 “빛이 파동(波動)이면서 동시에 입자(粒子)이다”라는 빛의 이중성으로부터 출발한 뒤 미시세계를 새롭게 설명하는 틀로 사용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미시세계는 이원론, 결정론 그리고 객관주의가 아닌 ‘중첩’과 ‘얽힘’에 기초한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후자는 ‘생명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생태학적 관점과 연관되어 있으며 ‘마음’, ‘의식’, ‘밥’, ‘문화’ 등의 비물질적 영역을 해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용어가 ‘중(中) 혹은 ‘사이(間)’이다. 이원론적 객관주의에 의하면, 유(有)와 무(無), 생물(生物)과 무생물(無生物), 몸(體)과 마음(心) 등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중’과 ‘사이’에 토대한 이론 혹은 사상에 따르

면, 이원론에서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현상, 경험, 사건 등이 동시적이며 상호 관계 하에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몸과 마음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인간(人間)’의 용어는 ‘중’과 ‘사이’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타인, 생물, 물질, 관습 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식과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개인과 공동체의 다른 이념 혹은 행위 양식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기와 해양 오염 등의 지구적 환경 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를 동시적이며 관계적으로 이해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 동시성과 관계성에 기초한 ‘중(中) 혹은 ‘사이(間)’의 관점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분법과 결정론의 이론 혹은 이념을 벗어나 창의적인 인식과 행위 양식을 제시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



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 강좌: 나를 찾아가는 자전적 풀라주 클래스



일시: 2023년 7월 1·8·15·22일(토)
19:00~21:00

장소: 프린체(부산 북구 낙동대로 1694번나길 2), 고치(부산 북구 낙동북로663번길 85-3, 201)

- 내용:
- 1회(프린체): 기억이라는 보물섬 (강의, 글쓰기)
 - 2회(고치): 풀라주 기획 및 시아 노트입 체험
 - 3회(고치): 풀라주 제작
 - 4회(고치): 풀라주 완성

인문 강좌: 나를 다독이는 아트북 만들기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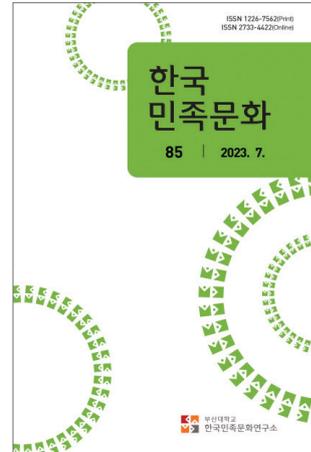
일시: 2023년 8월 5|12·19·26(토)
19:00~21:00

장소: 부산 북구 낙동대로 663번길 85-3, 201 협동조합 '고치'

- 내용:
- 1회: 정서의 발견+Emotion Card
 - 2회: 글쓰기+사이노타입
 - 3회: 아트북 제작(아코디언북)
 - 4회: 아트북 완성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85집(7월 31일 발간) 게재 논문



1. 김문기, 「현대 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었는’의 사용 양상과 특징 연구」
2. 김효정, 「松谷 李瑞雨의 『靑巖錄』 考察-비일상의 체험에서 지식생산으로의 전환」
3. 김아연, 「『탐라별곡』의 삼성혈 신화 수용과 변주」
4. 김경희, 「『최북전(崔北傳)』에 나타난 중인 예술가의 자의식에 관한 조희룡(趙熙龍)의 문제의식 연구」
5. 한길로, 「근대 한시에 나타난 중국 ‘단동’의 주요 공간과 시적 표상 고찰-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6. 강미정, 「일제 강점기 문학사 기술에 나타난 역사문학의 성격」
7. 박규택,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후의 농민시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고찰」
8. 나보령, 「편집자 오영수-『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중심으로」
9. 안지영, 「고정희의 변증법적 시학과 5·18 재현 양상 연구」
10. 서용태 · 박형준, 「해방 직후 이주홍의 『初等國史』 편찬과 고대사 서술의 함의」
11. 한유진, 「풍속화의 예술적 가치-속(俗)의 수용을 중심으로」
12. 김영술, 「한국 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조직과 활동 및 변화 연구-고려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원 동정

임면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보직명	이름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편집위원	이명수	2021.08.01.- 2023.07.31.	2023.08.01.	면직
편집위원	데이비드 김 (David Kim)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재임명
편집위원	로쿠탄다 유타카 (六反田豊)	2021.09.01.- 2023.08.31.	2023.09.01.	면직
편집위원	방미화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임명
편집위원	양흥숙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재임명
편집위원	이행선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임명
편집위원	형려국 (邢麗菊)	2021.09.01.- 2023.08.31.	2023.09.01.	면직

연구소

보직명	이름	발령기간	발령일자	비고
전임연구원	권서용	2023.07.01.- 2025.05.31.	2023.07.01.	재임명
전임연구원	배윤기	2023.07.01.- 2025.05.31.	2023.07.01.	임명
전임연구원	서보경	2023.07.01.- 2025.05.31.	2023.07.01.	임명
전임연구원	손정아	2023.07.01.- 2025.05.31.	2023.07.01.	재임명
전임연구원	원동필	2023.07.01.- 2025.06.30.	2023.07.01.	재임명
전임연구원	조춘희	2023.08.01.- 2025.05.31.	2023.08.01.	임명
전임연구원	오현석	2022.07.01.- 2023.08.31.	2023.09.01.	면직 (중도퇴사)
객원연구원	정준식	2023.09.01.- 2024.08.31.	2023.09.01.	임명
연구교수	지현주	2023.08.01.- 2025.05.31.	2023.08.01.	임명
운영위원(임명직)	공윤경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임명
운영위원(임명직)	조창오	2021.09.01.- 2023.08.31.	2023.09.01.	면직
운영위원(임명직)	최진아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재임명
운영위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조명기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재임명
운영위원 (자료정보실장)	노지현	2022.03.01.- 2023.08.31.	2023.09.01.	면직
운영위원 (자료정보실장)	임여주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임명
운영위원 (정치경제연구실장)	차창훈	2021.09.01.- 2023.08.31.	2023.09.01.	면직
운영위원 (철학사상연구실장)	이명수	2021.09.01.- 2023.08.31.	2023.09.01.	면직
운영위원 (철학사상연구실장)	조창오	2023.09.01.- 2025.08.31.	2023.09.01.	임명

학술활동

문재인, 로컬리트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경계, 연결, 생성의 교차점들, 창원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지역성 연구단 발표(2023.07.21.)

문재인, "심연수, 도쿄, 근대문학의 장소", 심연수 근대문학사료 연구 도쿄 학술세미나 좌장(2023.07.24.)

문재인, "일본군 '위안부' 기억문화와 시민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전문가포럼 토론(2023.08.28.)

차철욱, 피란여성의 부산 정착과 가족, "유동화하는 세계, 이주민의 민속학", 실천민속학회 하계 전국학술대회 발표(2023.08.11.)

지역서·논문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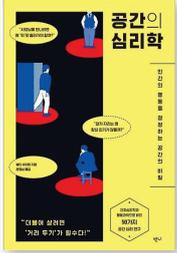
이름	제목	학술지명	발간일
조명기	지역 내/외부인의 정위와 문학적 재현의 양상 -『소설 부산』과 『부산을 쓴다』를 예로 들어	『인문과학』, 90	2023.08.



신간 소개

공간의 심리학 (Warum Männer nicht nebeneinander pinkeln wollen :und andere Rätsel der räumlichen Psychologie)

발터 슈미트 | 문항심 옮김 | 반니 | 2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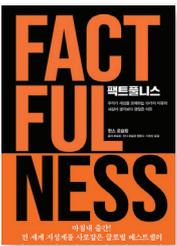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관심을 끌어들이다. 공간은 인간을 수용한다. 물론 사람은 공간을 만들어 수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공간은 곳, 장소, 사회, 건물, 거리, 고향, 위치, 자리 등등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거나 만나게 되는 곳, 장소, 사회, 건물, 거리, 고향, 위치, 자리 등등이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국면에 걸쳐 있는, 이런 공간을 통해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심리상태에 있게 된다. 곧 공간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의식이나 감정을 포함하는 심리상태는 역시 다양한 행동을 초래한다.

이 책은 이 같은 맥락적 이해를 요구한다. “창가 자리는 왜 항상 인기가 있을까?”, “사장님을 만나려면 왜 ‘위’로 올라가야 할까?”와 같은, 다분히 심리적인 문제를 공간과 결부시켜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인간이 만들고 파생하는 다양각색의 공간을 심리상태와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드러내고 있다.

팩트풀니스 (Factfulness: Ten Reasons We're Wrong About The World and Why Things Are Better Than You Think)

한스 로슬링·올라 로슬링·안나 로슬링 린룬드 |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9.03.



한스 로슬링 가족이 18년 동안 공동 작업한 내용을 2018년 출간한 책으로, 국내에는 2019년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 이름, 『팩트풀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세계 상황에 접근하는데, 이런 신선한 시도 덕분에 세계적으로 널리 호평을 받았다.

한스 로슬링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 저명한 공중보건전문가의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세상이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풍부한 데이터와 통계를 사용하여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건강, 부, 복지 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설명함으로써 세계에 널리 퍼진 부정적인 서사에 도전한다. 이 책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공포 본능, 격차 본능, 크기 본능 등의 10가지 인지적 편향 또는 ‘본능’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편견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스타일로 작성되어 있고 자신들의 일화와 실제 사례를 제시해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팩트풀니스』는 세계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 도전하는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성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도록 독려하면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낙관적인 시각도 제시한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알림

1.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는 매년 3회(3·7·11월),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4·10월) 발간됩니다.
2. 2023년도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평가 “S” 등급 유지
3. 부산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명: 피란수도 부산유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
 - 2) 참여대상: 재학 중인 대학 학부생
 - 3) 모집기간: 2023.10.10(화)~10.31(화)
 - 4) 프로그램 운영(5주): 2023.11.8(수)~12.6(수)
4. 부산대학교 기획처 <대학 및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 1) 사업명: 인생을 함께 보다-자서전 쓰기
 - 2) 참여대상: 부산시 금정구·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 3) 내용: 노인들에게 글쓰기 강좌를 통해 자서전을 쓰고 노인들이 생산한 자서전을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고 이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4) 프로그램 운영: 2023.10.~2024.2.